

<特 輯>

南美各國의 窒素質肥料 需給現況(2)

編輯者註: 다음은 Nitrogen No 132, July /

August, 1981. 에서 발췌 翻訳한

內容입니다

< Chile >

窒素質 肥料의 需要是 1975 年 이래 年間平均 17 %의 成長率을
보여 1979 年에는 54,000 N 吨의 施肥量을 보였는데 이는 1974
年에 消費된 59,000 N 吨보다 약간 못미친 量이었다.

回復된 時期는 1978 年 以后 政府가 肥料品目에 대하여 輸入關
稅를 폐지하기로 決定함에 따라서 그后 상당히 伸張되었다. 이러한
한 消費伸張의 主要原因是 現在 全體供給物量中 約 50 %를 차지하
고 있는 輸入物量이 急激히 增加된 덕분이었는데 1979 年에 輸入
된 物量을 보면 尿素가 22,000 N 吨, 二磷安이 5,000 N 吨等 全
體 27,000 N 吨의 窒素質이 輸入되었다.

이외에 8,000 N吨의 폭발성이 있는 硝安이 鎌山分野에서 使用
키 위해 購買되었다. 1980 年의 消費成長은 Chile에 肥料를 供
給하고 있는 主要供給국인 美国이 DAP 8,000 N吨과 42,000 N吨
의 尿素를 Chile에 輸出함으로써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美国 關稅額에 依하면 이들 DAP 와 尿素 輸出은 1979 年보다
48 %와 66 %를 略々 增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hile가 앞으로도 硝素質 消費成長을 急伸張시킬 수 있을지는
Pinochet 政府가 惡化되고 있는 缺損計劃에도 不拘하고 貿易 自
由化 政策을 고수할 수 있을지 또는 없을지에 거의 전적으로
달려있게 될 것이다.

(Colombia)

Colombia의 硝素質肥料 消費는 지난 10 年間을 通해 國內生
產이 需要의 40 %~60 %를 占함으로써 14 萬N吨에서 15 萬N吨
사이에서 變動되었다. 國內生產 比率은 1977 年 Cartagena에
位置한 Abonos Colombianos 의 尿素工場에서의 폭발사고가 없었
다면 現在보다 훨씬 높아졌을 것이다.

비록 대체工場 (年產能力 76,000 N吨)의 建設이 推進되고 있
지만 이 計劃의 進展은 尿素價格을 天然gas價格과 결부시켜 처

리 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結果를 期待하고 있다. 비록 Colombia 가 豊富한 天然 gas 를 保有하고는 있지만 天然 gas 價格이 窒素質價格의 上昇率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最近 Abocol 社의 製造經費가 急上昇했다. 例를 들면 1979 年 Abocol 社가 生產한 Ammonia 80,000 吨에 대한 製造經費는 2 億 3 千萬 \$ 였다.

그러나 1981 年의 全體經費는 79 年보다 12,000 吨을 추가 生產함으로써 製造經費는 41 %가 增加되었다.

Fertilizantes Colomboianos 社가 運營하고 있는 Barancabermeja 所在의 小規模工場으로 부터 生產되는 国内生產量이 制限을 받게됨에 따라 尿素의 輸入量은 相對的으로 增加되었다. 1980 年에는 前年보다 약간 낮은 水準인 87,000 N 吨을 輸入했다.
1981 年의 尿素輸入은 이와 비슷한 水準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
Colombia 的 複肥消費水準은 窒素質 消費量의 2/5 程度가 되고 있다.

大部分의 複肥供給은 Monomeros Colombos Venezolanos 社와 Abocols Cartagena Complex 社가 共國 運營하는 Baranquilla 에 位置한 国内工場에서 맡고 있다.

장래 窒素質 肥料의 需要展望은 밝다 더욱이 經濟的으로는 支

拂剰餘金의 収支가 改善되고 1980年 国内 總生產이 4%의 成長率을 보임으로써 밝은 局面을 나타내고 있다.

< Peru >

Peru의 硝素質 肥料 消費는 1975年 輸入量이 急激히 減少되었던 때를 除外하고는 1970年初 이래로 상당한 水準에 達했다. 1979年 硝素質 消費量이 89,000 N吨으로 약간 減少된 것은 国内 生產이 72,000 N吨에서 65,000 N吨으로 限界減縮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農業生產性에서 한발의 영향도 일부 기인된다. Peru에서 가장 인기있는 肥料는 年間 約 50,000 N吨을 消費하고 있는 尿素肥料이다. 1970年代 上半期에 Talara에 位置한 Petroperr의 年產 83,000 N吨 規模의 工場이 完工된 이래 Peru의 農業資材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尿素는 国内에서 거의 供給되어 왔는데 1979年에는 3,000 N吨의 尿素만이 輸入되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製品은 硝安肥料로서 最近 年間 約 20,000 N吨이 施肥됨에 따라 매우 安定勢를 보였다.

1979년에는 南美 最初의 硝素質 肥料 製造 設備의 하나인 Collao에 있는 Fertisa工場으로 부터 15,000 N吨의 硝安이

供給되었으며 12,000 N屯이 輸入 되었다. 硝安以外에 7,000 N屯의 硫安肥料가 1979年에 使用되었는데 大部分이 輸入된 肥料이다. Peru의 장래 硝素質肥料 使用展望은 不確実하다.

Fernando Belaunde 大統領의 新政府는 南部 인접국인 Chile의例를 따라 輸入規制를 自由化 시켰으며 長期的인 無稅의 投資 장려策과 貸付를 提示함으로써 農業에 대한 投資를 높이고 農業生產性을 增加시킬 目的으로 새로운 農業促進法을 제정했다. 이같은 政策들은 앞으로 몇년간 輸入量을 增加시켜 아마도 肥料 消費量을 增加시키겠지만 農業生產이 한발에 의해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어떤 効果가 즉시 나타날것 같지는 않다.

< Venezuela >

El Tablazo와 Puerto Moron 地域에竣工된 新工場으로 부터의 適當한 供給에 依해 Venezuela의 硝素質消費는 石油위기에 따른 國際景氣의 減退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 낼 수 있었다.

1975年 国内 總 硝素質消費実績은 14%가 增加돼 65,000 N屯에 達했으며 그뒤 年間 約 10%씩 계속 增加, 約 2,000 N屯이 增加되었다.

비록 이 나라 全體의 硝素質肥料 需給은 均衡을 이루고 있으

나 主要製品 가운데는 不均衡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Venezuela는 年間 約 70,000 N屯의 尿素過剩을 자랑하고 있으나 複合肥料는 不足 狀態이다.

1979年 複合肥料 消費量은 46,000 N屯에達했는데 그중 2/3는 輸入되었다.

Venezuela의 尿素質 肥料 消費 展望은 밝다. 國內工業은 더 많은 生產結果을 가져올 回復期를 맞고 있다.
정말로 設計잘못이나 電力不足과 같은 要因等은 生產能力 利用面에 있어 改善할 여지가 많는데 Puerto Moron 團地는 이러한 要因들 때문에 生產量이 극히 저조했었다.

年產能力 114,000 N屯의 尿素 設備를 保有한 Puerto Moron 複合肥團地는 1979년 3,000 N屯밖에 生產치 못했다.

1980년에 38,000 N의 生產実績을 올렸지만 아직도 改善할 여지는 많다.

<結論>

生産施設의 擴張이 制限될것 같은 狀況에 따라 南美에서의 장래 肥料 消費는 開放的인 貿易을 維持시키려는 政府의 자발적인 意圖에 달려있게 되었다.

Brazil의 경우와 같이 關稅를 包含한 다른 制限措置에 대한
180°의 전환만이 肥料 消費를 增加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政府가 계속적인 輸入을 維持할 수 있는 能力은 各国의 經濟狀
態와 特히 現在 全世界的인 景氣下落局面에서 어떻게 回復될 것인
가에 차례로 달려있다 하겠다.